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최윤*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7. 23(토) ~ 8. 20(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1. 위치 : 라살 아라네타 대학은 말라본 시티에 위치해 있으며, 마닐라 중심부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과 쇼핑센터 등을 이용할 때, <i>토요일*</i>을 제외하고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공항으로부터 대학까지는 약 1시간 소요되며, 작은 마트(SM Hypermarket 및 Pure Gold)까지는 10분, 큰 쇼핑센터인 SM North와 Mall of Asia까지는 각각 30분,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i>* 토요일은 교통 체증이 심각해서 보통 평소보다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며, 비 오는 날은 그 이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16km 정도의 거리를 3시간에 걸쳐 간 경험이 있습니다.</i></p> <p>2. 규모 및 시설 : 라살 아라네타 대학은 초, 중, 고, 대학교가 같이 운영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시설은 신식은 아니지만 크게 낙후되지 않았고, 파견 당시 틈틈이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에어컨이 계속 해서 가동되기 때문에 날씨가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수업 중간에 가끔씩 정전이 될 때가 있었던 것, 학교 내 변기 물이 늦게 채워지는 것, 변기에 커버가 씌워져 있지 않은 점(하버드, 캠프릿지 1층 화장실에는 씌워져 있습니다)이 아쉬웠으나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p> <p>3. 분위기 : 필리핀에 가서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가 그 곳의 분위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활기칩니다. 하루에 8시간 수업 받는 것이 뻘뻘할 줄 알았는데, 좋은 분위기 덕분에 재미있게 지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p>

수업	<p>하루에 수업은 총 8시간(50분 씩)이며,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오전 8시~오후 6시25분까지 수업을 듣습니다. 중간에 개개인 마다 2시간 씩 NO CLASS 시간이 있어서 수업 시작 시간,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각기 달랐습니다. 수업은 크게 3가지로 나뉘며, 아래와 같습니다.</p> <p>1. 1:1 수업 (3시간) : 맨투맨 시간에는 발음, 라이팅, 스피킹에 수업을 받았습니다. 발음 시간에는 그 동안 애매하게 발음했던 것, 잘못 발음했던 것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었으며, Tongue twister를 통해 발음을 교정하기도 했습니다. 라이팅 시간에는 매주 2회 작성하는 Essay에 대한 교정을 받기도 하고 올바른 전치사, 접속사를 활용하는 것 등을 배웠습니다. 스피킹 시간에는 주어진 토픽에 대한 글과 대화를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봄으로써 영어로 의사 표현하는 방법을 훈련했습니다.</p> <p>2. 소그룹 수업 (2시간, 5명) : 소그룹 수업은 스피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입, 전개, 마무리 순서로 스피킹을 하는 연습이 주가 되었으며, 토픽에 대해 즉시 답변하는 것, 아웃라인만 가지고 스피치 하기, 스크립트를 준비하고 그를 바탕으로 발표하기 등 다양한 스피킹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격테스트, 게임 등을 매체로 한 스피킹 활동도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가장 많이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p> <p>3. 대그룹 수업 (3시간, 10명) : 대그룹 수업은 토익스피킹, 리스닝, 멀티미디어 잉글리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토익스피킹 시간에는 토익스피킹에 대해 배우고, 배운 것을 실전처럼 테스트해볼 수 있었습니다. 리스닝 시간에는 주로 리스닝 파일을 듣고 빈 칸 채우기, 문제 풀기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멀티미디어 잉글리시 시간은 액티비티가 주가 되어 진행되었고, 비교적 가볍게 들을 수 있던 수업이었습니다. 토익스피킹, 리스닝 시간과 비교했을 때, 같은 그룹 사람들과 쉽게 친목을 쌓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p> <p>모든 수업에서 과제는 전반적으로 거의 없었으나, 매주 2회 에세이를 써서 제출해야 했고, 매주 월요일 마다 60개의 단어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거의 모든 과목이 매주 시험이 있었으나, 에세이를 쓰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큰 어려움 없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p> <p>선생님들도 전반적으로 수업 준비 열심히 해주시고,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한 달 동안 재미있게 지내다 왔습니다.</p>
----	---

Activity	따가이 따이 트립, 팍상한 폭포 트립 등이 있었는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에 민도로 트립(2박 3일)을 갈 예정이었으나, 현지 기상 관계로 취소되어 가지 못 했습니다. 비용은, 민도로 트립 같은 경우 3500 페소였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는 전반적으로 덥고 습했으나,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1-2주 차에는 잠깐 오고 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가 올 때는 예상치 못 하게 수업 중간 중간에 오기도 해서, 작은 우산을 늘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3주 차에는 며칠동안 계속해서 비가 엄청 많이 쏟아져서, 기숙사 로비에 물이 약간 차기도 하고, 말라본 시티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어학당 같은 경우는 수업이 예외 없이 진행되었는데, 멀리에서 오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못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교통체증도 심해져서 외출할 때는 오가는 시간도 평소의 2배 이상이 걸렸고, 택시를 잡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덧붙여, 어디를 가나 실내에서는 계속해서 에어컨이 가동되었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는 저는 겉옷이 꼭 필요했습니다.
안전	학교 뒤편에 바공바리오 마켓(시장)이 있는데, 저희가 도착하기 1주일 전에 총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초반에는 가는 것을 꺼려하다가, 나중에 필리핀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에는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이다 보니 많이 북적북적하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큰돈을 들고 다니거나, 혼자 다니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필리핀의 도로 교통사정은 한국보다 질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숙소	외부 숙소 : 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호스텔(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3인 1실을 사용했고, A동, B동, C동 중에 C동에서 생활했습니다. 정수기, 냉장고가 있어서 편리했고, 방 정비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해주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샤워할 때 물 온도를 조절할 수 없던 점, 휴지가 제공되지 않는 점, 엘리베이터가 없어 짐을 오르고 내릴 때 불편했던 점이 있습니다. 통금은 주중, 주말 관계없이 오후 10시였으며, 대학이 위치한 거리와 숙소 내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습니다.
식사	숙소 내 호스텔 식당 : 아침, 점심, 저녁은 주로 숙소 내 1층에 위치한 호스텔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식단이 한식으로 짜여 있고 한국 분이 조리사로 계시기 때문에, 음식이 전반적으로 입맛에 맞았습니다. 기후 상, 가끔 나물류의 반찬이 상한 것 같은 때가 있었던 점은 아쉬우나,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교통	학교는 숙소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쇼핑센터나 주말에 외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Grab Taxi(한국의 카카오 택시)인데, 한국과 비교했을 때 택시비가 많이 저렴하고, 출발지와 목적지가 명확해서 가장 편리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버스, 트라이씨클, 지프니를 이용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타는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굳이 Grab Taxi를 이용하지 않고도 쇼핑센터를 오갈 수 있었습니다. 또, 버스와 지프니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할인이 적용되어 조금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숙소에서 정기적으로 쇼핑센터, 교회, 은행 등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741,350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 교통비, 기념품, 생활용품, 간식	453,853	\$400 (달러로만 환전해갔습니다.)
합계	1,195,203	

5. 출국 전 준비사항

1. 선생님들 선물

: 필리핀에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선생님들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필리핀 가서 적당한 선물 찾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선물할 만한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시트 팩, 핸드크림 등)이라던가, 한국 부채, 손수건 등의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 가면 좋았을 걸하고 아쉬웠습니다. 담당 선생님들이 8명이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에게 다 줄 필요도, 큰 선물은 준비할 필요도 없지만, 적어도 여러 장의 작은 카드라도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진통제

: 특히 여자들의 경우는 예상보다 더 많은 진통제를 챙겨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 하게 주기가 빨라지기도 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몸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진통제가 필요해서 데스크에 내려갔는데 지사제와 소화제만 많고, 진통제가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넉넉하게 약을 챙겨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Have to Do List

: 생각보다 주말 및 여가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갈 곳은 비교적 한정 되어있지만, 한국인에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갈 곳, 먹을 것 정보 많이 알아가서 여가시간 활용 잘 하면 더 알차게 지내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한 달이 정말 짧게 느껴질 정도로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가기 전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학교 분위기도 정말 좋았고 선생님들, 친구들도 다 좋아서 많은 것을 얻어 올 수 있었습니다. 영어 공부에 있어서는 저의 약점을 알 수 있었고, 그 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보완할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어 학습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룹 수업 덕분에 다양한 학교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같이 간 친구들과도 가까워 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수업도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어를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활기차게 수업을 진행해주셔서 하루 8시간 공부가 마냥 힘들지 않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랑 토크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도 재밌었고, 음식도 입맛에 맞는 것이 많고 과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풍족하게 지내다 온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SM NORTH EDSA에 있는 캥거루 잭에서
여자들끼리 다 같이 맛있는 밥! :)



소그룹 선생님, 같은 그룹 친구들이랑
마지막에 롤링페이퍼 쓰기 :)



BGC(Big Group Class)친구들과
BGC(Bonifacio Global City)에 있는
Venice Piazza 구경 :)



빅그룹 친구들과 졸업식 후 단체 사진 :)



선생님이자 멘토, 친구였던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JEREMIAH! :)



빅그룹 티처 RIZA와 함께 마닐라 투어 :)